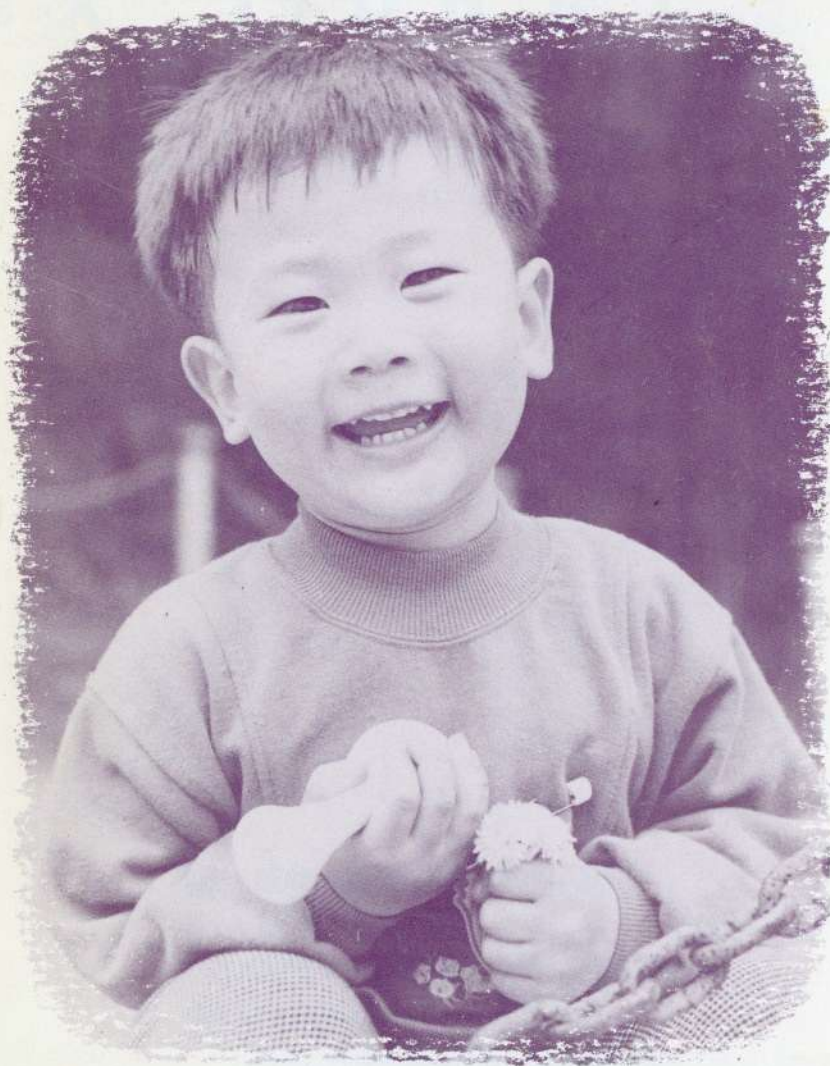


제7회 일하는 어머니 큰잔치

꿈을 갖고 **쑹쑹**, 함께크는 우리아이



일시 : 1994년 10월 30일(일) 오후 2시~5시

장소 : 숭실대학교 채플실

주최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275-8505~6)

주관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서울경인지역 자원활동가 대표자회의

후원 : 숭실대학교 총여학생회

제7회 일하는 어머니 큰잔치

꿈을 갖고 **쑹쑹** 함께크는 우리아이

최현숙 / 지역사회학아소연합회 회장

8월 14일 >

장소: 송실대학교 ... 1기(사)복합문화센터 ... 상(사)문화예술교육

부드러운 바람이 살며시 스쳐가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것이 생각나는 계절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8월 14일 >

그리고 화창한 가을을 맞으며 풍성하게 보낸 한해에 이어 올해도
일하는 어머니 큰잔치라는 자리를 통해 이곳 송실대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8월 14일 >

올해는 참으로 많은 고민을 하며 이 자리를 마련하고 준비했습니다.
다. 무대를 이리저리 살피고, 각 지역에서 준비하는 발표를 하
시 지역의 어머니와 교사들이 자리를 빛내고 생이 아름답게 흐르기를
기원합니다. 8월 14일 >

일시: 1994년 10월 30일(일) 오후 2시~5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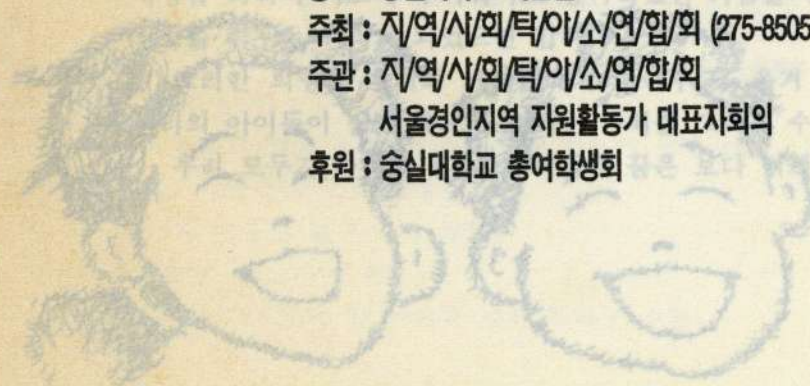
장소: 송실대학교 채플실

주최: 지/역/사/회/학/아/소/연/합/회 (275-8505~6)

주관: 지/역/사/회/학/아/소/연/합/회

서울경인지역 자원활동가 대표자회의

후원: 송실대학교 총여학생회



제7회 일하는 어머니 큰잔치

꿈을 갖고 쑥쑥, 함께 크는 우리 아이

짜임새

◁ 인사말 / 3

아이들을 위한 세상, 함께 만들어봅시다! 최현숙 회장

◁ 오늘의 행사 / 4

◁ 출연진 소개 / 6

◁ 송실대학교 시설 안내도 /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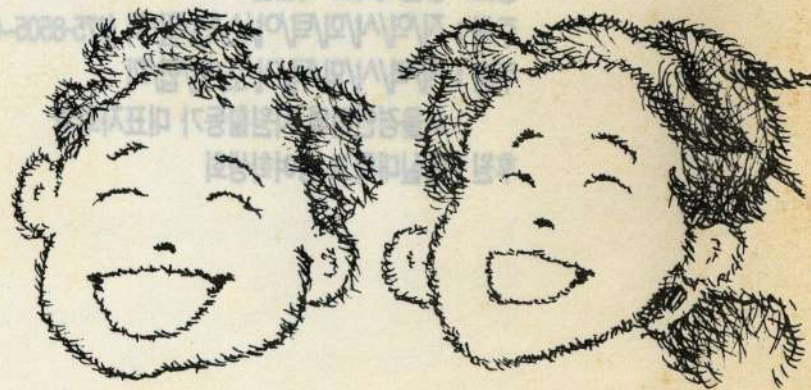
◁ 공동육아란? / 8

함께 크는 우리 아이

◁ 함께 부르는 노래 / 10

◁ 참가가족 / 13

◁ 도움을 주신 분들 / 14



인사말

아이들을 위한 세상, 함께 만들어봅시다!



최현숙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회장

부드러운 바람이 살며시 스쳐가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많은 것이 생각나는 계절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북악산의 기운을 받으며 흥겹게 보낸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리는 어머니 큰잔치라는 자리를 통해 이곳 송실대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올해는 참으로 많은 고민을 하며 이 자리를 준비하고, 마련하였습니다. 무대를 야외에서 실내로 옮겼고, 각 지역에서 준비하는 발표물 역시 지역의 어머니와 교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이나 기대가 되는 어머니 큰잔치입니다.

이제 그 결실을 내보이는 이 자리가 아이를 키우며, 집안일을 하며, 직장을 다니며 어느새 무거워지고 웅어리졌던 가슴을 활짝 열고 또다른 희망을 피우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한 희망을 우리의 새싹들에게 보여주고, 옮겨 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밝게 웃으며 커가는 사회를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때 아이들의 꿈은 보다 밝게 자라날 겁니다.

오늘의 행사

제7회 일하는 어머니 큰잔치

길놀이 / 진행 : 영등포 새싹 어린이집 졸업생 자모 품물패

2:00 - 2:20 개회식

2:20 - 2:40 노래공연 / 가수 윤태규

2:40 - 2:50 슬라이드 상영

「어머니 큰잔치의 발자취를 찾아」

2:50 - 3:05 사회극 발표 / 해송어린이집 어머니들

3:05 - 3:40 이야기 나눔의 시간 / 사회 오숙희 교수

「아이 키우기, 나만의 문제인가」

3:40 - 3:50 막대동화 / 진달래동산 어린이집

「말뚝이 아저씨」

3:50 - 4:10 아동물동 / 구로, 인천지역 아이들

4:10 - 4:30 노래단 / 인천지역 교사노래단,

구로지역 어머니노래단

4:30 - 4:40 품물공연 / 새싹어린이집 졸업생 자모 품물패

4:40 - 5:00 폐회식

* 아동프로그램

- 인형극 상연

「인형놀이」의 “금도끼, 은도끼”, “방울이의 눈물”

체플관 1층 102호 강의실

공연시간 1회 오후 2시

2회 오후 3시 30분

- 컴퓨터 운영 : : 학생회관 3층 여학생휴게실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야외놀이마당 : 도서관 앞 잔디밭

놀이마당 앞에 있는 아동행사본부에 응급약품과 식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간식 : 아동행사 본부

아이들 간식으로 두유를 4시에 나눠드립니다. 각 어린이집 아동을 책임지는 교사나 자원활동가는 아동행사 본부에서 아동간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전시회 : 행사장 주변과 복도

- 엽마가 만드는 인형(봉천)
- 창작동화(동부)
- 환경소모임의 활동 소개 및 동서식품 병수거 서명작업(구호)
- 앞치마, 장바구니 전시(인천)
- 우유곽을 이용한 교구 전시(성남)
- '공동육아' 박스터널(북부)
- 엽마와 교사가 함께 한 아이들 사진 콜레주(수원)

출연진 소개

이정남

오로지 어머니 큰잔치를 위해 대전에서 부터 서울로 사회를 보러 온 열정과.
지탁연 소속인 대전 샘골어린이집에서 교사생활을 하다 최근 대전YMCA에서 유아 레크리에이션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윤태규

32살의, 아직은 아이를 키워보지 못한 노총각 가수.
1집 앨범 「예감으로 느낀 너의 표정」에 이어 최근 2집 앨범 「부족한 사랑」을 발표, 많은 이들의 관심과 애정을 기다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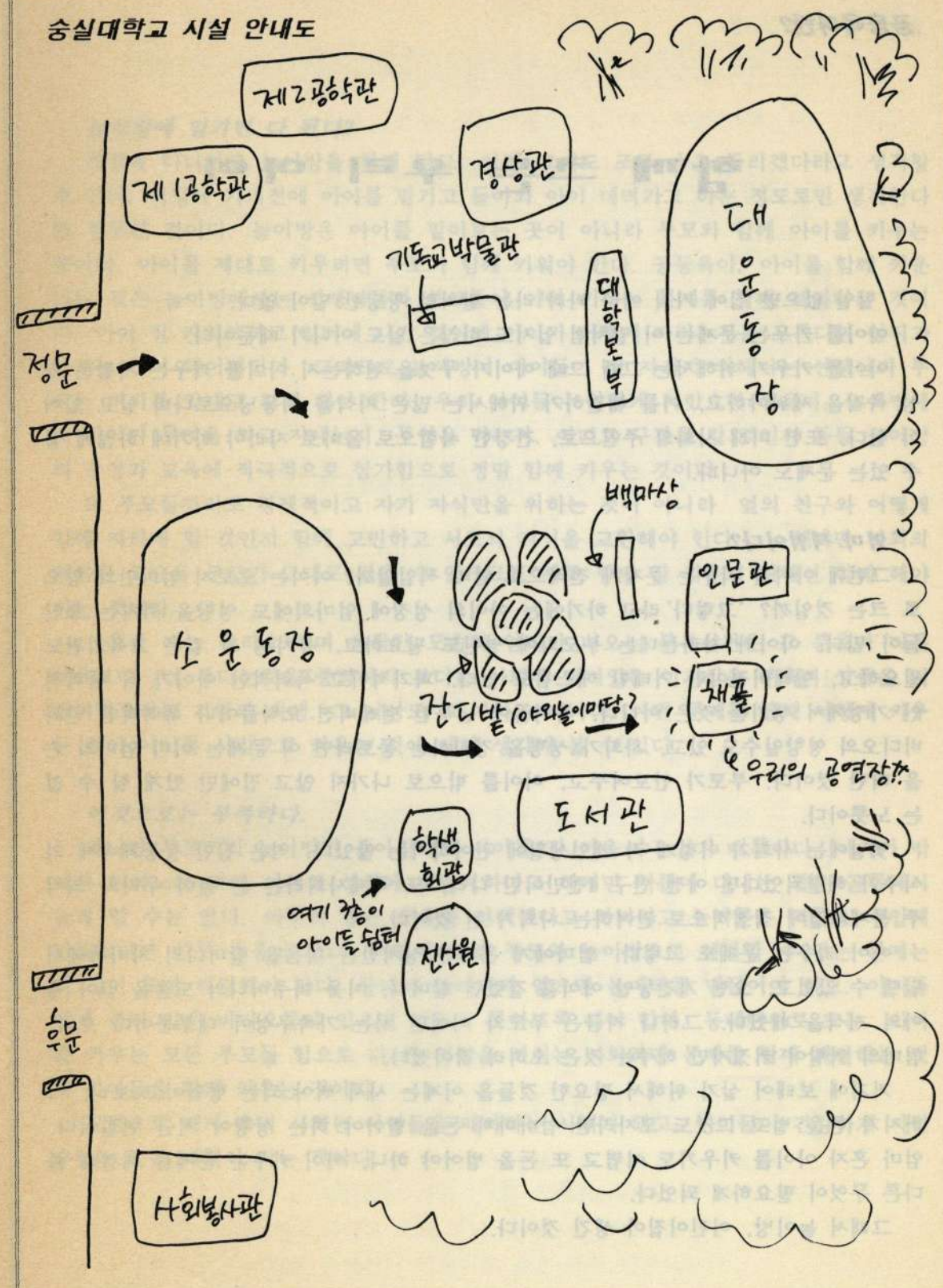
오숙희

두아이의 엄마이면서 현재 이화여대 여성학 교수.
KBS 「생방송 여성」으로 우리와 친숙해졌으며, 현재 SBS 생방송 「남자를 위하여」의 공동사회를 맡고 있다.

인형놀이

93년 12월에 창단된 어찌보면 신참내기 인형극단.
그러나 어린이집 교사, 작가, 놀이방 자원활동하는 학생, 주부, 직장인 등 다양하고 또 우리의 아이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생각하는 이들로 구성.
아이들의 건강한 문화에 도움을 주고자 저소득층의 어린이집이나 공부방에 무료순회공연을 여러번 마련한 바 있다.

송실대학교 시설 안내도



함께 크는 우리 아이

‘할일 없으면 집에 가서 애나 봐라’라는 말처럼 황당한 말이 없다.

아이를 키우는 문제는 이 말처럼 쉽지도 하찮은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때 그때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항상 촉각을 세워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을 귀동냥으로나마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미래 사회의 주인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올바르게 자라야 하기에 하찮게 볼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엄마 책임이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문제가 전적으로 엄마 책임일까? 아이는 오로지 엄마만의 힘으로 크는 것일까?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아이의 성장에 엄마 외에도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 많다. 아이가 자라는데는 부모 외에 병원도 필요하고, 유치원 과 같은 교육기관도 필요하고, 텔레비전이란 거대한 매스컴도 있다.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아이가 꼭 폭력적인 가정에서 생기는 것은 아니다. 폭력물이 난무한 텔레비전 오락물이나 폭력적인 만화 비디오의 영향일수도 있고, 사회가 생명을 경시하는 풍토라면 이 문제는 이미 엄마의 손을 떠난 것이다. 부모가 안보여주고, 아이를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게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옛날에는 사회가 이렇게 각 개인생활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작은 집단 공동체속에 의식주가 해결되었다면 이젠 인구 4천만이란 나라, 또 국제사회라는 큰 틀이 우리의 의식주 문제해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사회가 된 것이다.

아이 키우는 문제도 그렇다. 엄마에게 혼나면 상처받은 마음을 할머니의 치마폭에서 달랠 수 있었고, 오랜 기간동안 아이를 길렀던 할머니, 이웃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아 육아의 지식을 배웠다. 그러나 지금은 부모와 아이만 사는 가족구성이 대부분이다 보니, 엄마의 역할이 커졌지만 해주는 것은 오히려 작아졌다.

거기에 보태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는 사서 써야 되는 형편이고 보니, 아버지가 돈을 벌고 그것도 모자라면 엄마마저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 지금 현실이다. 엄마 혼자 아이를 키우기도 어렵고 또 돈을 벌어야 하니, 아이 키우는 문제를 해결해 줄 다른 무엇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놀이방, 어린이집이 생긴 것이다.

놀이방에 맡기면 다 된다?

직장에 다니려고 놀이방을 찾게 되고, 이젠 그래도 조금 숨을 돌리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직장에 가기전에 아이를 맡기고, 돌아와 아이 데려가고 하는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놀이방은 아이를 맡아보는 곳이 아니라 부모와 함께 아이를 키우는 곳이다.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부모가 함께 키워야 한다. 공동육아,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것은 놀이방에서는 선생님들과 부모들이 아이 키우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다. 아이 잘 키워보려고 일터에 나간 것인데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모른다면 앞뒤가 안맞는 것이 되어버린다. 그러므로 놀이방이 아이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선생님과 부모는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으면 좋을지, 놀이방에서 아이가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무엇을 먹는지, 어디로 구경을 갈 것인지 등등 놀이방의 운영과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가함으로 정말 함께 키우는 것이다.

또 부모들끼리도 경쟁적이고 자기 자식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옆의 친구와 어떻게 함께 자라게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서로의 지식을 교환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의 왜곡된 모습을 부모가 그대로 닮을 수 있으므로 서로 함께 잘 키우기 위해선 함께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애는 달라요’하며 용감한 모습의 엄마가 나오는 분유선전은 그 분유가 다른 분유보다 더 좋다는것을 증명하기 보다는 사회에 퍼져있는 이기심을 부추려 상품을 더 팔아먹으려는 기업의 속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런 문제를 통해 어떻게 키우는 것이 아이를 사람으로 키우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왜냐면 부모끼리 놀이방만 좋아진다고 아이를 잘 키울 수는없기 때문이다. 아이가 밖에서 뛰어노는 것이 아이의 성장에 바람직하다고 하지만 차들이 다니는 좁은 골목에서 놀게 할 수는 없다. 아무리 좋은 분유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농약물은 곡물을 수입해 만들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몇몇 부모와 놀이방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더 많이 모여 해결해야 한다. 동네에 놀이터가 없으면 놀이터를 만들어야 하고,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비디오물이 있으면 만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동네단위로 또는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들 힘으로 더 큰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해서 우리 사회는 아이들을 배려하는 사회가 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있는 근본 개혁이 되는 것이다.

함께 부르는 노래

우리의 노래가 이 그늘진 땅에 햇볕한줄 될 수 있다면

백창우 글·곡

Em D Em C G B7
우리의 노래가 이 그늘진 땅에 따뜻한 햇볕한줄 될수있다면 어

Am G Em C B7
들 산천 타 오르는 작은 햇불하나 될수있다 면 우

Em D Em C G B7
리의 노래가 이 잠든 땅에 북소리 처럼 울려 날수있다면 침

Am G Em C B7
목 산천 솟구쳐 오를 큰 함성하나 될수있다 면 정

C B7 Em G
말 좋 겠 네 - 하늘 첫마을부터 땅

D C B7 G
끝마을까지 무너진 집터에 서저 공장들까지 아아 사람의노래
녹슨 철책선 너머서 지뢰밭까지 해방의노래

D C B7 Em
평화의노래 큰 강 물로 흐를그 날 그 날 엔
통일의노래 큰 눈 물로 흐를그 날 그 날 엔

E E A E
이름 없는꽃들 다 이름을얻고 움추린어깨들 다

F#m7 B7 E A E
퍼졌네 - 닫힌 가슴들 - 다 열리고 쓰러진이들다일어

B7 E A B7
아침을맞겠네 그 날이오면 그 날이오면 모두하나될그날이오

E B7 E A B7
면 - 얼싸안고 춤을추겠네 한 판대동의춤을추겠

E rit. B7 A E
네 한 판대동의춤을추겠 네 - D.S.

사는게 먼지(계사곡)

1. 사랑이 무엇인지 가정이 무엇인지 그땐 정말 몰랐죠
아이가 생긴 후에 좋은 부모 되고픈 희망 가득 안고서
2. 첫째는 유아탁아 둘째는 영아탁아 우리 맞벌이 부부
날마다 출근전쟁 몸과 맘 고달프대도 우린 행복하다네

<후렴>

하지만 자녀교육 힘이 들지 나혼자선 할 수가 없지
아빠도 보사부도 함께 하는 공동육아 이루어보세

3. 철수도 출세출세 영희도 일류일류 모두들 열을 내는데
친구도 몰라몰라 사랑도 나는 몰라라 산다는게 한판 승부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냐 산다는건 함께 하는 것
다함께 손맛잡고 힘들어도 좋은 세상 이루어보자

사노라면

1. 사 노 라 면 - 언젠가는 - 좋 - 은
2. 비가 새는 - 판자집에 - 새 - 우

날도 오겠지 - 흐린날도 - 날이 새
잠을 잔대도 - 고운 - 함께라

면 해가 뜨지 않 더 - 나 -
면 즐거움지 않 더 - 나 -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 밀천인 데
오손도손 속삭이는 밤이 있는 한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 숨을 쉰까 퍼라
한숨일랑 쉬지 말고 가 숨을 쉰까 퍼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제7회 일하는 어머니 큰잔치 참가가족

북부지역 어린이집

-> 어린이사랑방, 밝은 어린이집, 둥근나라 어린이집, 햇님 어린이집, 햇살 어린이집

동부지역 //

-> 개나리동산, 슬기 아이방, 오손도손 애기방
성동구 민간보육시설연합회 소속 어린이집

중부지역 //

-> 개구장이 어린이집, 해송 아기둥지, 또래 놀이방

봉천지역 //

-> 봉천동 애기방, 씨씨가 놀이방, 재롱둥이 어린이집

구로지역 //

-> 구로 어린이집, 새터 어린이집, 튼튼이 어린이집, 온누리 어린이집, 새싹 놀이방,
한울 탁아방, 다우리 어린이집, 어깨동무 어린이집
구로구 민간보육시설연합회 소속 어린이집, 영등포구 민간보육시설연합회 소속 어린이집

인천지역 //

-> 골목 어린이집, 나눔의 집, 민들레의 집, 새싹어린이집, 햇살 어린이집, 우리동네 어린이집,
무지개동산 어린이집, 새쌍둥이 어린이집, 엄마방 어린이집, 샘터 선교원 어린이집
인천시 민간보육시설연합회 소속 어린이집

부천지역 //

-> 아이사랑 어린이집, 동그라미 어린이집

안산지역 //

-> 오손도손애기방, 진달래동산 어린이집
안산시 민간보육시설연합회 소속 어린이집

수원지역 //

-> 용기종기어린이집, 올망졸망 어린이집

성남지역 //

-> 푸른솔 애기방, 새날 아기마을, 하늘 어린이집, 동방 어린이집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전국 80여개 어린이집이 소속되어 각 지역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큰잔치를 위해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주당 여성국

이우정 (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여성특별위원장)

박상천 (민주당 국회의원, 보사위원장)

강부자 (통일국민당 국회의원)

(주) 한림토이스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인천 한겨레 문고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천지부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서울대 병원노동조합

봉천 3.6동 주민회 준비모임

봉천 5.9동 주민회 준비모임

-> 음향기기 도움 : 숭실대학교 총학생회

-> 반주 도움 : 안산 문화패 '어깨동무', 한양대 노래패 '하늬바람'

-> 비디오 도움 : 푸른영상

-> 사회극 도움 : 연세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사회극패

-> 조명기기 도움 : 숭실대학교 합창단

-> 사진 도움 : 김병희(사진작가)

-> 포스터 사진, 슬라이드 촬영 : 이주영(수원 웅기종기 어린이집 교사)

인천에서 제일 큰 서점

한겨레 문고

부평점 : 515-2500, 만수점 : 468-8127

어머니 큰잔치 준비를 함께 하신 분들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중앙 준비위원회 =

최현숙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회장, 준비위원장

황미혜 / 문화홍보간사

백주화 / 북부지역, 어린이 사랑방

김미정 / 동부지역, 개나리동산 어린이집

박정숙 / 중부지역, 해송 아기동지

이경녀 / 봉천지역, 씹씹이 놀이방

유승현 / 구로지역, 온누리 어린이집

이옥희 / 안산지역, 오손도손 애기방

최은아 / 인천지역, 햇살 어린이집

정순옥 / 수원지역, 올망졸망 어린이집

= 서울경인지역 탁아소 자원활동가 대표자회의 =

숭실대학교 탁아동아리 '어린이사랑방'

서강대학교 여학생협의회 탁아분과 '애드리랑'

숭의여자전문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꼬마라기'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탁아분과 '애포레'

중앙대학교 탁아동아리 '사랑터'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콩콩'

국민대학교 총여학생회 탁아분과 '꼬마사랑'

국민대학교 전자과 탁아소모임

그외 각 지역의 자원활동가 선생님들

= 숭실대학교 총여학생회 여러분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란?

계속 증가되고 있는 기혼 여성들 취업과 그로 인한 방치 아동을 보호, 교육하기 위하여 빈민, 공단지역에 어린이집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집들은 경제적, 환경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해 일터로 뛰어드는 기혼 여성들과 희망과 의욕에 찬 선생님들이 함께 꾸려가고 있습니다.

일하는 맞벌이 부부와 아동의 문제가 각 가정의 개별적 문제가 아닌 공동의 문제라 인식하고 함께 풀어나가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전국에 8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어린이집들이 좀더 활발하고 내용성 있는 활동을 해나가기 위해 함께 모여 연합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개별 어린이집을 회원으로 하여 각 지역에 지역위원회를 두고 개별 어린이집들이 지니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와 일하는 기혼 여성들의 주체적 삶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에서는 아동교육과 부모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전, 경력 교사들의 교육과 회보 발간, 자료집 발간 및 어린이날 행사, 어머니 큰잔치 등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탁아법 제정과 국가의 지원을 위한 각종 연대사업과 연구사업, 그리고 공청회 등의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이땅의 모든 일하는 여성과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각 지역에서 작은 살림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 어린이집의 뜻을 모아 함께 모인 저희 연합회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보다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나고 아울러 여러 어려운 이웃들이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다립니다.

항상 일손이 부족한 어린이집에서 함께 일하고자 하는 분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 밖에 놀이감, 동화책, 아동복 등 무엇이든지 후원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은행구좌 : 상업은행 449-08-015088 최현숙

외환은행 217-19-8622-2 최현숙

국민은행 004-24-0313-199 최현숙

자료회원 구좌 : 국민은행 068-21-0479-941 정희연

엄마에게 일할 권리,
아이에게 보호·교육받을 권리를!!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00-391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1동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TEL. (02)275-8505~6 FAX. (02)275-8506